

【논문】

만주문학, ‘향토’ 서사로 다시 읽기 —량산딩(梁山丁)의 문학주장과 작품을 중심으로—*

정겨울**

| 차

레 |

- I. 들어가며
- II. 중국 문학 속 ‘향토문학’의 개념과 증층적 이해
- III. ‘향토’ 개념의 유동성과 만주국의 ‘향토문학’
- IV. ‘향토’ 서사와 『녹색의 골짜기』 다시 읽기
- V. 나오며

국문초록

전쟁과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하에 전개된 만주국의 문학은 당시 만주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정치·문화 현상을 포괄하고 있다. 식민 지배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만주국 문단에 등장한 중국인 작가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고유성과 지역적 색채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향토문학’을 주장한다. 특히 1930년대 후반에 전개된 만주국 내 향토문학 논쟁은 ‘향토’ 개념에 대한 이들의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향토문학은 중국 문학의 전통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문학 등의 영향을 받으며 그 독자적 개념과 의미를 구축해 나간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당시 만주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던 중국인 작가 량산딩(梁山丁)과 그의 ‘향토문학’ 주장에 주목하며 그 속에 담긴 지역문화의 특색과 독자적 의미를 파악하고, 작가가 바라본 만주국 향토사회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만주국의 향토문학이 관내(關內)의 향토문학과 지니는 차이점을 고려하고, 량산딩이 주장하는 향토문학이 러시아, 일본의 문학과 어떠한 접점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3379).

**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문학 주장 속에서 '향토'의 개념과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과 그 수용 과정을 되짚어 본다. 본고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만주문학 내 향토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만주국 향토문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평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향토문학, 향토, 만주국문학, 량산딩, 『녹색의 골짜기』

I. 들어가며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기형적 환경 속에서도 '만주국'¹ 문단에서는 다양한 문학주장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문학 형식을 위한 시도가 지속되었다. 그중에서도 만주국 내 중국인 작가(본고에서는 이하 '만주국 작가'로 이들을 지칭함)들의 문학 창작은 당시 만주국 문단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며, 이들의 창작 활동은 중국현대문학사에 있어서도 비교적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이 지역은 본래 만주국 성립 이전부터 문학을 비롯한 문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더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일찍이 청조(淸朝)는 이 지역을 자신들의 발원지이자 조상의 신성한 기운이 담긴 땅으로 여겼기에 오랜 시간 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 하였다. 19세기 중후기에 이르러 산둥(山東)², 허난(河南) 지역의 수재로 인한 이주민들의 북상(北上)과 '관동으로 넘어간(關關東) 사람들'에 의해 비로소 이 지역은 일반 민중들에게 개방 되었다. 그러나 척박한 기후와 사회 제반 시설의 부족, 봉건적 사회제도 및 장쥬린(張作霖)과 같은 군벌의 통치로 인해 이 지역은 줄곧 중원지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독자적인 사회 발전 노선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중화민국 시기에 이르러

1 중국 학계에서는 '만주국' 명칭에 대한 표기에 있어 만주국이 일본의 괴뢰정권이었다는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위(偽)만주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고는 국내 및 국외 학계에서 만주국과 그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 사용과 이해를 기반으로 일률적으로 '만주국'으로 명명한다. 다만, 일부 학술 저서 및 문학 작품에서 '위만주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원문 인용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인용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2 본 논문의 중국어 인명 및 지명은 국립국어원의 중국어 발음표기법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

서도 이 지역은 계속해서 '관동(關東)', '관외(關外)' 지역으로 일컬어지며 '관내(關內)'³지역과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더군다나 1932년 만주국의 성립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며 이 지역은 거대하고도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만주국 성립 이후 대규모 철도 건설을 중심으로 근대화된 대도시들이 등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만주국의 농촌 사회는 붕괴되었고, 도농(都農) 간의 빈부격차, 계급 및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30년대 만주국 문단에 등장한 작가들은 자연스럽게 만주국 사회와 대다수 민중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 의식을 작품 속에 드러내었다. 특히 이들 대다수는 5.4신문학을 비롯한 좌익문학, 러시아(소련)와 일본 등 새로운 문학 사조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신세대 작가들로 문학에 대한 열정과 함께 만주국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였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해 강한 감정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이들의 문학주장 및 창작 활동 전반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만주국 시기에 등장한 '향토문학'에 대한 논의와 실천일 것이다.

사실상 중국문학사에 있어 향토문학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일찍이 1920년대부터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향토문학이 창작되었다. 특히 5.4 이후 등장한 중국의 신문학은 향토문학 이론의 형성과 그 창작에 있어 방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루쉰(魯迅)을 비롯해 선충원(沈從文), 마오둔(茅盾) 등의 향토문학을 시작으로 1950-1970년대 성장한 왕정치(汪曾祺), 자핑와(賈平凹), 모옌(莫言),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츠

3 중국에서 관내(關內) 지역은 일반적으로 산하이관(山海關)의 서쪽, 쓰촨(四川)과 간쑤(甘肅)의 동쪽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는 관외(關外) 지역으로 불렸는데 이는 산하이관 이외 지역의 통칭을 의미한다. 특히 만주국의 영역이었던 현재 중국의 동북삼성(遼寧, 吉林, 黑龍江)은 산하이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예로부터 관동(關東)으로 명명하였다.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卷編纂編委會 編, 1996,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339-340쪽 참고.

쯔젠(遲子建)과 같은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향토문학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구조와 형태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문화적 함의의 범위 역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향토문학의 발전 맥락 속에서 1930년대 후기부터 1945년 해방 직전까지 만주국에서 형성된 향토문학 주장과 창작물은 중국 현·당대 향토문학사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대상이다. 특히 만주국의 향토문학은 식민지 만주국이라는 시공간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만주국 내부에서 형성, 발전한 하나의 독특한 문학 형태이자 이후 중국현대문학사에서 만주국 시기 문학의 위치와 의의를 기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중국에서 만주국 문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항일문학에 대척하는 친일문학의 잔류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각은 만주국 문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생성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 역시 친일작가라는 오명을 얻으며 이후 갖은 고초를 겪게 된다. 1980년대 들어 이러한 연구 시각에 큰 변화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만주국 문학은 대다수 연구자들(심지어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까지 포함)에 의해 철저하게 ‘애국’, ‘항일’의 범주 속에서 해석되었고, 이는 곧 만주국 문학을 읽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시각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연구 시각의 요구가 잇따르며 만주국 문학, 특히 만주국의 향토문학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만주국 향토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중국 문학 속 향토문학의 변천 과정을 되짚어 보는 동시에, 20

4 200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다양한 향토문학 연구서들이 출판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다수가 중국 향토문학의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접점을 추적하거나 신시기 이후 중국 당대문학사에서 향토문학의 변천 과정과 의의를 되짚어보고자 하는 시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 문학사에서 향토문학을 이들의 문학적 근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중국문화의 정체성을 향토에서 찾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문화 정체성을 향토에서 찾자 하는 시도는 현재 중국의 민족 정체성 강화와 우수한 전통 문화 요소의 발굴이 장려되는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기 초 근대 중국에서 '향토' 개념이 지니는 유동적 성격이 만주국 향토문학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만주국의 대표적인 향토문학 작가 량산딩의 문학주장과 작품에 대한 독해를 통해 만주국 향토문학에 대한 새로운 독법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는 곧 만주국의 향토문학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데, 즉 만주국 시기 활동했던 작가들이 생각했던 '향토', '향토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들의 향토문학 주장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재탐색일 것이다.

II. 중국 문학 속 '향토문학'의 개념과 증층적 이해

중국현대문학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향토문학'의 개념을 언급한 인물은 저우취런(周作人)이다. 1910년, 저우취런은 헝가리 작가 모르 요카이(Mór Jókai)의 『노란 장미』를 중문으로 번역하고 직접 서(序)를 작성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이 작품을 “근래 향토문학의 걸작”⁵이라고 높게 평가한다. 당시 저우취런이 모르 요카이의 작품에서 발견했던 소위 '향토'적인 요소는 바로 작가 개인의 고향에 대한 그리운 감정과 사색의 내용, 이국적 풍경의 묘사였다. 그러나 이 시기 저우취런이 언급한 향토문학은 명확한 이론의 성립과 실천보다는 5.4 이후 중국에 소개된 다양한 외국 문학 사조에 대한 이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 향토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등장한 향토문학의 주장과 이론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미국 문단에서 브렛 하트(Brett Harte)를 주축으로 하는 몇몇의 작가들은 향토문학의 창작을 적극적으로 제창한다. 사실상 이들이 주장한 향토문학은 영국 문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문학의 각성과 전환을 촉구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

5 周作人, 『『黃薔薇』序』, 鐘叔河編, 1995, 『周作人文選·卷一』, 廣州: 廣州出版社, 80쪽.

다.⁶ 그러나 당시 이들이 주장했던 향토문학은 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이론적 근거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단순히 지방색이 짙은 ‘로컬 컬러(Local Colour)’를 의미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로컬 컬러는 이후 미국 향토문학 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실제로 미국 향토문학의 이론 성립과 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미국의 좌익 문학 작가인 햄린 갈런드(Hamlin Garland)⁷였다. 햄린 갈런드는 브렛 하트와 같이 향토문학 창작에 있어서 강렬한 지방 색채의 표현을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동시에 향토문학 속에 내재한 사회 비판적 의식의 표현을 강조하였고, 이는 곧 미국 향토문학의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잡게 된다.⁸ 사실상 1920년대 저우취런이 이해했던 향토문학의 개념 역시 브렛 하트와 같은 작가들이 주장했던 ‘로컬 컬러’의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향토문학의 핵심 요소는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강렬한 지방 색채와 분위기, 풍경 등이었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이후 저우취런은 「지방과 문예(地方與文藝)」(1923)에서 향토문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니체는 『차라투스투라』⁹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에게 간구하기를 땅에 충성하라.’ 내가 말한 의미도 바로 이와 같은 ‘땅에 충성

6 黃萬華, 1988, 「鄉土文學和現代意識」,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 152쪽.

7 햄린 갈런드(1860-1940)는 미국 향토소설 이론 건설의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실제로 농촌 출신이었던 햄린 갈런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중서부 농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고 이러한 작품 성향으로 인해 미국 향토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힌다. 햄린 갈런드는 “지방색채가 문학 생명력의 원천이자 독특한 특징”으로 이해했으며, 해당 지역에서(향토) 나고 자란 작가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지역의 향토색채를 문학 작품 속에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향토문학과 도시문학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향토’와 지방색채를 기반으로 20세기 미국 문학의 상징과 장르를 개척해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햄린 갈런드의 대표작으로는 『더처 집안의 장미(Rose of Dutcher’s Coolly)』(1895), 『중부 변경의 아들(A Son of the Middle Border)』(1917), 『중부 변경의 딸(A Daughter of the Middle Border)』(1921)이 있다. 특히 『중부 변경의 딸』로는 1922년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丁帆 等著, 2007, 『中國鄉土小說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3-4쪽(e-book) 참고.

8 余榮虎, 2008, 「早期鄉土文學與域外文學理論, 思潮之關係」,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5), 38-45쪽 참고.

9 니체의 『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를 지칭함.

하리'는 것인데 사람은 '땅의 자손(아들)'으로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허공에 뜬 생활을 좋아하여 아름답지만 공허한 이론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마치 옛날 도학(道學)의 고문(古文)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으니 심히 애석한 바이다. 사람은 땅에서 생활하며 흙의 기운과 냄새를 자신의 맥박 속에 스며들게 해야 하며 이를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상과 문예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지방 생활을 묘사하는 '향토문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문예에 해당된다."¹⁰

여기에서 저우취런은 향토문학을 '지방 생활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땅과 인간의 감정적 유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저우취런이 이해했던 향토문학은 마땅히 '지방', 즉 '향토적 색채'가 다분한 생활에 대한 발견과 묘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지식인과 토지(땅)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유대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 문학 속 주요 제재로 다루어졌다. 당대의 저명한 문학비평가인 자오위안(趙園) 역시 "중국의 지식인과 토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들에 대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¹¹고 서술하며 중국 문학 속에서 양자 사이의 존립하는 독특한 정신적 유대 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토지, 나아가 농촌, 향토로 확대되는 일련의 상징적 표상들은 중국의 신지식인들, 특히 5.4 이후 문단에 등장한 신세대 작가들의 실제적 삶과 창작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10 “尼采在『察拉圖斯忒拉』中說：‘我懇願你們，我的兄弟們，忠於地。’我所說的也就是這‘忠於地’的意思，因為無論如何說法，人總是‘地之子’，不能離地而生活，所以忠於地可以說是人生的正當的道路。現在的人太喜歡凌空的生活，生活在美麗而空虛的理論裏，正如以前在道學古文裏一般，這是極可惜的，須得跳到地面上來，把土氣息泥滋味透過了他的脈搏，表現在文字上，這才是真實的思想與文藝。這不限於描寫地方生活的‘鄉土文學’，一切的文藝都是如此……。”周作人，『地方與文藝』，張菊香編，2009，『周作人散文選集』，天津：百花文藝出版社，80-81쪽.

11 “誰若對中國知識分子與土地的聯系一無所知，他就永遠不可能真正了解中國的知識分子。”趙園，1982，『來自大野的雄風——端木蕻良小說讀後』，『十月』(5)，245쪽.

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5.4이후 신문학을 주도했던 수많은 문학청년들과 신세대 작가들은 새로운 이상을 찾아 고향을 떠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와 같은 대도시로 이주하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문학 창작에 있어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 곳의 자연 환경 및 대다수 민중의 삶, 특히 농민들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이는 중국 향토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토대로 자리 잡는다.

비록 향토문학의 개념을 처음 언급했던 사람은 저우취런이지만 사실상 중국현대문학사에 있어 향토문학의 개념과 정의를 새로이 확립했던 인물은 루쉰(魯迅)이었다. 루쉰은 1935년 『『소설이집』서론(『小說二集』導論)』에서 쟈센아이(蹇先艾), 왕루옌(王魯彥), 타이징농(臺靜農)과 같은 작가들¹²을 언급하며 이들의 작품 속에 농후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 표현, 이역(異域)의 풍경 묘사 등을 향토문학의 특징으로 꼽았다. 루쉰은 저우취런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향촌의 모습을 독자의 “눈앞에 펼쳐주고”, 이러한 풍경이 궁극적으로 “독자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¹³ 그러나 이와 동시에 루쉰은 이후 마오둔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향토문학 창작에 있어 현실에 대한 작가의 날카로운 사회 인식과 인생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루쉰은 특별히 타이징농에 대해서 “대다수 작가가 경쟁적으로 사랑이야기나 도시의 명암(明暗)만을 논할 때, 향촌의 삶과 죽음, 흙냄새를 종이 위에 옮겨온 작가로 이보다 더욱 부지런한 이는 없다”¹⁴라며 매우 긍정적인 평가

12 이들의 문학창작은 5.4이후 문학의 주요 소재로 등장한 ‘국민성개조’ 사상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들의 작품 대부분은 농촌 사회의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봉건적 사상의 억압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의 모습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낙후해 있는 농촌의 피폐한 삶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창작 경향은 루쉰 문학 사상과 영향과 그 연결점을 발견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타이징농의 『텐얼거(天二哥)』, 쟈센아이의 『수장(水葬)』, 왕루옌의 『취잉의 결혼(菊英的出嫁)』 등이 있다.

13 “異域情調來開拓讀者的心胸，或者炫耀他的眼界。” 루쉰, 『『소설이집』서론』, 劉運峰 編, 2009, 『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86쪽.

14 “在爭寫著戀愛的悲歡，都會的明暗的那時候，能將鄉間的死生，泥土的氣息，移在紙上的，也沒有更多，更勤於這作家的了。” 루쉰, 『『소설이집』서론』, 劉運峰 編, 2009, 『中國新文學大系導

를 내리기도 했다.

상술한 저우취런이나 루쉰과 달리 마오둔은 향토문학 창작에 있어 사상적 측면을 특히 강조했다. 험린 갈런드가 향토문학의 사회 비판적 의식을 강조했다던 것과 같이 마오둔은 작가의 주체적인 의식과 세계관 형성을 향토문학의 핵심적 내용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마오둔은 「향토문학에 관하여(關於鄉土文學)」(1936)에서 “‘향토문학’이 단순히 특수한 풍토와 인정(人情)에 대한 묘사만 있다면 이는 그저 한 폭의 이국적인 그림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비록 경이로움을 자아내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저 호기심의 만족일 뿐이다. 그러므로 향토문학은 특수한 풍토와 인정의 묘사 외에도 사람들에게 있어 운명에 대항하여 몸부림치는 보편적이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여행자와 같은 안목만 가지고 있는 작가는 우리에게 전자(前者)만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어느 정도 갖춘 작가라면 후자(後者)를 주안점으로 삼고 이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¹⁵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마오둔의 창작 성향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대표작인 『자야(子夜)』를 비롯해 소위 ‘농촌 3부곡’으로 불리는 『봄누에(春蠶)』, 『추수(秋收)』, 『늦겨울(殘冬)』 등에서 작가는 농촌의 현실과 계급투쟁, 제국주의 침략자에 대항하는 저항정신 등을 부각시키며 중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1930년대 중국의 향토문학은 당시 문단을 주도했던 좌익문학의 지배적 영향력과 함께 러시아를 비롯한 폴란드 등 동유럽 약소국가들의 문학에서도 그 자양분을 흡수하며 발전하였다. 이 시기 전쟁과 식민지배로 피폐해진 삶을 살던 동유럽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는 강렬한 민족의식의 고취와 식민

言集1917-1927』,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91쪽.

15 “關於‘鄉土文學’,我以爲單有了特殊的風土人情的描寫,只不過像看一幅異域的圖畫,雖能引起我們的驚異,然而給我們的,只是好奇心的饜足.因此在特殊的風土人情而外,應當還有普遍性的與我們共同的對於運命的掙紮.一個只具有遊歷家的眼光的作者,往往只能給我們以前者;必須是一個具有一定的世界觀與人生觀的作者方能把後者作爲主要的一點兒給與了我們.”茅盾,「關於鄉土文學」,1991,『茅盾全集·二十一集』,北京:人民文學出版社,89쪽.

지배자에 대한 저항의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1930년대 혼란한 중국 사회의 현실과 상응하며 루쉰, 마오둔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루쉰은 일찍이 자신의 문학창작과 관련하여 러시아와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의 문학과와의 조우가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기도 했다.¹⁶ 실제로 5.4이후 대다수 지식인들은 러시아의 문학 작품과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니콜라이 고골(Nikolai Gogol), 도스토옙스키(Dostoevskii), 안톤 체호프(Anton Chekhov), 바실리 에로셴코(Vasili Eroshenko)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폴란드 작가 헨리크 시엔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일찍이 저우쥬런은 『아Q정전(阿Q正傳)』의 성공이 고골과 시엔키에비치의 “유머러스한 필치로 압담한 사건을 서술”하는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으며¹⁷, 루쉰 스스로도 “『외침(吶喊)』을 쓸 때, 시엔키에비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¹⁸고 말하기도 했다. 향토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쟈센아이의 작품 역시 시엔키에비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두 작가 모두 타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과 함께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고뇌하는 지식인의 심정과 이들에 대한 연민이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향토문학의 전개 과정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비록 저우쥬런, 마오둔과 같은 작가들이 일찍이 향토문학의 정의와 이해에 있어 다양한 주

16 “나는 나중에 외국 소설들, 특히 러시아, 폴란드, 발칸의 작은 나라들의 소설을 보고 세계에도 우리와 같이 고단한 운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어떤 작가들은 이를 위해 소리치며 싸우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後來我看到一些外國的小說, 尤其是俄國, 波蘭和巴爾幹諸小國的, 才明白了世界上也有這許多和我們的勞苦大眾同一運命的人, 而有些作家正在爲此而呼號, 而戰鬥)” 魯迅, 『英譯本『短篇小說選集』自序』, 2005, 『魯迅全集·第七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411쪽. 이 외에도 루쉰은 1909년 동생인 저우쥬런과 함께 일본에서 『역외소설집(域外小說集)』을 출판하였다. 이 소설집은 외국 작가의 소설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총 16편의 작품이 실렸으며 그 중에는 프세볼로트 가르신(Vsevolod Garshin, 1855-1888), 표도르 솔루구프(Fyodor Sologub, 1863-1927), 안톤 체호프 등 다수의 러시아 작가의 작품이 번역, 수록되어 있다.

17 周作人, 「關於魯迅之二」, 張均 編, 1938, 『周作人代表作選』, 上海: 全球書店, 19쪽.

18 “寫『吶喊』, 思想上受點顯克微支的影響。” 張直心 著, 2016, 『鐘晚集』,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31쪽에서 재인용.

장을 제시했지만 그 실천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정작 루쉰과 선충원의 문학 창작이었다는 사실이다. 먼저 루쉰의 경우는 상술하였듯이 향토문학에 대해 이역의 풍경과 함께 사회 비판적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루쉰의 문학이 지니는 계몽적 성격과 그 연결 지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루쉰의 문학은 이후 '동북작가군(東北作家群)'¹⁹으로 일컬어지는 샤오홍(蕭紅), 샤오죈(蕭軍)과 같은 작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고, 이들의 문학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파괴된 자신의 고향과 그 곳의 농민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나아가 농민에 대한 계몽의 의지를 포괄하기에 이른다.²⁰ 관내로 이주해 활발한 창작 활동을 했던 샤오홍의 대표작 『생사의 장(生死場)』에 대해서 루쉰은 “북방 민중들의 삶에 대한 건강함, 죽음에 대한 몸부림을 힘찬 필치로 그려내었다”²¹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반면 선충원의 경우는 루쉰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향토문학을 추구하였다. 선충원은 줄곧 스스로가 '시골 사람(鄉下人)'이라는 신분 의식과 함께 작가 본인의 고향인 '상시(湘西)'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그려내는데 충실했다. 선충원은 상시의 신비롭고도 순수한 자연과 풍토, 인물 등을 작품 속에 묘사하는 동시에 도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는데 이는 작가의 독특한 '향

19 일반적으로 중국현대문학사에서 '동북작가군'의 명칭은 '동북윤합구작가(東北淪陷區作家, 본고에서는 만주국 작가로 명칭하였음)와의 구분을 위해 사용된다. 동북작가군은 샤오홍, 샤오죈, 뤄무홍량(端木蕻良) 등과 같이 동북 출신 작가이지만 일찍이 관내 지역으로 이주하여 문학 창작을 지속했던 작가들을 의미하며, 동북윤합구작가는 만주국 성립 이후에도 그 지역에 남아 만주국 문단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량산딩(梁山丁), 왕츄잉(王秋英), 구딩(古丁), 우잉(吳瑛), 이즈(疑邇) 등을 들 수 있다.

20 중국학계에서 동북작가군에 대한 평가는 줄곧 항일문학의 선구자적 역할과 상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샤오죈, 샤오홍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루쉰, 마오둔, 후펑(胡風) 등의 평론이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해당 작가 및 중국 동북문학 연구의 주요한 연구 방향으로 굳어진다. 물론 이들 작품 속에 내재하는 저항정신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작품을 단순히 항일문학의 범주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관련 연구 시각 확장에 있어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근래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이들의 문학을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21 “北方人民的對於生的堅強，對於死的掙紮，卻往往已經力透紙背。”魯迅，「蕭紅作『生死場』序」，2005，《魯迅全集·第六卷》，北京：人民文學出版社，422쪽.

토감각' 혹은 일종의 '향연(鄉戀)'의 내용을 바탕으로 표출된 것으로 루쉰과는 또 다른 결의 향토문학을 창조했다.²² 특히 선충원은 “미(美)는 선(善)의 한 형태”²³라고 인식하였기에 대부분의 작품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와 함께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그려냈다. 그러나 선충원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봉건적 사상 및 비극적 인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와 반대되는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함께 진행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비록 향토문학의 표현 형식이나 그 주안점에 있어서 루쉰과 선충원은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지만 궁극적으로 두 작가가 모두 향토문학이 그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과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향토 사회 본연의 모습'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의 향토문학은 5.4이후 전개된 신문학과 좌익문학의 영향과 더불어 20세기 초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과 같은 외국 문학의 수용과 변형 속에서 그 개념을 확립, 발전하였다. 비록 1930년대 이후부터는 좌익문학의 주도 하에 중국의 향토문학은 대략 루쉰이 주장했던 향토문학의 개념과 방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망국노(亡國奴) 신세로 전락한 동북작가군과 만주국 작가(동북운합구작가)들에게 있어 기존의 향토문학 속에 내재한 사회 비판적 시각과 저항 의식은 만주국 문학의 형성과 방향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만주국 작가들의 독특한 '향토' 개념과 함께 이들의 '애향(愛鄉)' 의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만주국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위치 속에서 만주국의 향토문학은 관내 지역의 향토문학과는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었고, 이는 '향토' 개념의 새로운 발견으로 연결되었다.

22 陳繼會 等著, 1999, 『中國鄉土文學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6-10쪽.

23 “美就是善的一種形式.” 沈從文, 『『看虹摘星錄』後記』, 劉洪濤, 楊瑞仁 編, 2006, 『沈從文研究資料·上』,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62쪽.

Ⅲ. '향토' 개념의 유동성과 만주국의 '향토문학'

1932년 만주국 성립 이후 만주국문단은 일본의 통제와 감시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았지만 1941년 이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유지되며 활발한 창작 활동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30년대 후반 만주국 문단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는 1937년 잡지 『명명(明明)』²⁴을 중심으로 발생한 '향토문학' 논쟁일 것이다. 그 동안 중국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량산당(梁山丁)과 왕추잉(王秋螢)을 중심으로 하는 '문총(文叢)-문선파(文選派)'와 구딩(古丁), 이츠(疑運), 쥬칭(爵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예문지파(藝文志派)'의 대립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은 사실상 상반된 문학 주장의 첨예한 대립이기 보다는 '만주국 문학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했던 청년 작가들의 문학 논쟁으로 보는 시각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²⁵ 실제로 이 사건은 만주국 문학의 성격 및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량산당, 왕추잉 등을 중심으로 한 소위 '문총-문선파'가 주장

24 잡지 『명명(明明)』은 1937년 3월 우순(撫順)에서 창간한 종합적 성격의 상업 잡지이다. 1937년 8월부터는 순수 문예지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1938년 9월 제4권 1기를 마지막으로 경제적 원인으로 정간한다. 잡지의 편집인은 이나가와 아사지로(稻川朝二路)와 사쿠마 신키치(佐久間幸吉)였으며, 발행인은 조시마 도쿠주(城島德壽)와 고마고에 고조(駒越五貞)였다. 『명명』은 월간만주사(月刊滿洲社)의 사장이었던 기시마 후네야키(城島舟禮)의 후원을 통해 발행되었는데 비록 편집인, 발행인이 모두 일본인이었지만 실제로 잡지 편집을 했던 인물은 중국의 문학청년들로 구딩(古丁), 와이웬(外文), 이츠(疑運), 신자(辛嘉), 샤오쑹(小松) 등이었다. 이 잡지를 중심으로 편집자와 작가들은 구딩을 핵심으로 하는 동인작가 그룹을 형성하였다. 발행 당시 『명명』은 만주국 문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잡지였는데, 해당 잡지는 본래 문학 작품을 발표하던 신문의 문예란에서 순수 문예잡지의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명명』정간 이후, 구딩과 동인들은 예문지사무회(藝文志事務所)를 조직했고 대형 문예잡지인 『예문지(藝文志)』를 창간한다. 劉曉麗, (日)大久保名男 編著, 2017, 『偽滿洲國의文學雜誌』(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史料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24-25쪽.

25 량산당, 왕추잉 등을 주축으로 '향토문학'을 주장하는 '문총-문선파'와 구딩을 주축으로 순수예술 및 사인주의(寫印主義)를 주장하는 '예문지파'는 만주국 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서로 다른 방법(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두 그룹 모두 만주국 문학의 주체성을 획득하고 중국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문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겨울, 2019, 「滿洲文學의 형성과 滿洲想像: '文叢派'와 '藝文志派'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89) 참고.

한 향토문학의 내용과 그 실천에 관한 것이다. 환언하면, 당시 량산당과 왕쑤잉 같은 인물들은 왜 향토문학이 만주국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주장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학주장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 확대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사실상 만주국 문단에서 ‘향토문학’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고 이에 대한 주장을 펼쳤던 인물은 샤오권이다. 샤오권은 동북작가군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1930년대 초반 하얼빈(哈爾濱) 문단의 형성과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본래 군인 출신이었던 샤오권은 1931년 9·18사변 발생 직후까지만 해도 무력을 통한 항일세력 구축과 항일무장투쟁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지만 결국에는 무장 항일 운동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붓’을 통한 애국애민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샤오권은 군대를 퇴역하고 1932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에 종사, 하얼빈을 기반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²⁶ 이 시기 샤오권은 「1934년 이후 만주 문학의 진로(一九三四年後滿洲文學的進路)」에서 “먼저 향토의 현실을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²⁷는 문학주장을 제창한다. 물론 이와 같은 문학 주장에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만주국 성립에 대한 작가의 강한 저항의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샤오권은 관내 이주 후에도 줄곧 항일적 색채가 강한 작품들을 창작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관내 문단에서 샤오권은 대표적인 항일문학 작가로 평가 받게 된다.

이 시기 량산당은 당시 하얼빈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샤오권, 샤오홍, 뤼핑(羅峰), 바이랑(白朗), 바라이(巴來)등과 같은 작가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며 이들의 문학 사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량산당과 샤오권 등은 당시 하얼빈에서 발행되던 『국제협보(國際協報)』²⁸를 중심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26 王科, 徐塞, 張英偉 著, 2008, 「蕭軍評傳」,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36-39쪽.

27 “先從暴露鄉土現實做起.” 張毓茂 主編, 1996, 『東北現代文學史論』, 瀋陽: 瀋陽出版社, 328쪽에서 재인용.

28 『국제협보』는 1918년 8월 1일 신징(新京, 지금의 장춘(長春))에서 창간되었고, 1919년 11월 10일 하얼빈으로 그 근거지를 옮긴다. 『국제협보』는 1920년대부터 애국주의 사상 및 민

전개하였으며 이들은 문학 창작 전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확고히 한다. 첫째, '단행본'의 발행; 둘째, '만주국의 현실을 폭로'하는 문학 창작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와 같은 주장이 이미 1934년에 하얼빈 문단에서 등장했다는 사실로 이는 시간적으로는 루신의 향토문학 주장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었다.²⁹ 그러나 비록 시기상으로는 이들의 향토문학 주장이 루신보다 앞선다고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향토문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루신, 마오둔과 같은 신문학 작가들과 좌익문학 사조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³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량산당의 향토문학 개념 및 사상 형성이 1930년대 중국의 좌익문학 이외에도 러시아와 일본문학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먼저, 량산당은 문학창작 과정에 있어서 러시아 문

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1930년대 초기에는 『국제공원(國際公園)』, 『녹야(綠野)』 등과 같은 부간(副刊)을 창설, 다수의 신진작가들이 문학작품을 발표하며 동북작가들의 요람으로 자리잡는다. 1932년 송화강 대홍수가 일어났던 시기 여관에 갇혀있던 샤오홍은 『국제협보』에 서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편집자였던 페이신위안(裴馨園)이 샤오권을 보내 그녀를 도와주게 하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34년 『국제협보』는 『문예(文藝)』주간지를 발행하였고 당시 바이량이 해당 주간지의 편집을 맡았다. 『문예』는 바라이, 튀핑, 샤오권, 샤오홍, 바이량, 슈첸(舒群), 산당 등 수많은 청년 작가들의 활동 근거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러나 1937년 일본의 신문통제로 인해 결국 정간된다. 哈爾濱市地方誌編纂委員會 編, 1994, 『哈爾濱市誌: 報業廣播電視』,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1-25쪽 참고.

- 29 “루신과 마오둔이 각각 1935년과 1936년에 발표한 향토문학에 대한 글들이 어쩌면 함락 이후 동북 지역에 유입되어 산당이 접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나 산당이 1937년 제창한 향토문학의 주장은 결코 이 두 글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방면의 원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산당은 북만(北滿)의 혁명 문예 환경 속에서 루신 선생의 향토문학 계시 하에 소련 및 동유럽, 북유럽의 진보적 문학의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1920년대 중국 혁명문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이후 자신의 향토문학 주장의 기초를 다졌다(원문은 지면 관계로 생략).” 徐塞, 「山丁鄉土文學的主張及其實踐——兼談『綠色的谷』的評價」, 陳隴 等編, 1998, 『梁山丁研究資料』,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357-358쪽; 嶽玉傑, 1993, 「試論梁山丁的鄉土小說」,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 122쪽.
- 30 “『들풀』은 내가 읽었던 루신 선생의 첫 작품이었다. 이는 마치 송화강 남쪽 언덕의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이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野草』是我讀的第一本魯迅先生的書。它給予我的感受, 恰如松花江南岸那明淨的秋天, 給予我思想和感情上的影響也如那明淨的秋天.)” 蕭軍 著, 1981, 『魯迅給蕭軍蕭紅信簡註釋錄』,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8쪽.

학의 사실주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별히 량산당은 「나와 동북의 향토문학(我與東北的鄉土文學)」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러시아 문학의 애호가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1930년대 초반 하얼빈 문단에서 활동했던 시기를 회상하며 “그 때 나는 19세기 러시아의 현실비판주의 작품과 톨스토이, 체호프, 푸시킨의 작품을 좋아해 이들을 교과서와 같이 여겼다”³¹, “19세기 소련의 작품을 문학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았다”³²고 밝히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녹색의 골짜기(綠色的谷)』후기에서 만약 자신이 작품 속에서 만주국 농민에 대한 묘사를 “고골의 『죽은 혼』과 미하일 솔로호프(Michail Sholokhov)의 『고요한 돈강』과 같은 구성과 인물 성격을 본받아 표현”할 수 있다면 이는 “북방 지역의 문학자로서 가장 고상한 임무를 다하는 것”일거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량산당이 러시아 문학의 영향 속에서 이들의 문학과 같은 서사적 방식이나 사상의 표현, 인물 형상의 구축 등을 의도적으로 추구했음을 설명하고 있다.³³

이와 더불어 일본문학과 량산당의 문학 주장의 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는 일본의 소설가인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³⁴의 영향을 들 수

31 “那時，我喜歡19世紀的俄羅斯文學，對批判現實主義作品，對老托爾斯泰，契訶夫，普希金的作品，當做教科書一樣。”梁山丁，「我與東北的鄉土文學」，陳隄 等編，1998，《梁山丁研究資料》，瀋陽：遼寧人民出版社，227-228쪽.

32 “那時的作家是以蘇俄19世紀的作品爲養料的。”梁山丁，「我與東北的鄉土文學」，陳隄 等編，1998，《梁山丁研究資料》，瀋陽：遼寧人民出版社，226쪽.

33 “我想滿洲的農民雖然不是『死魂靈』和『靜靜的頓河』裏的農民，然而卻有著性格上和生活上的共同點。我很放肆地想：倘能用『靜靜的頓河』那樣宏達的構成，用『死魂靈』那樣駭人的筆法，描寫滿洲的渾厚的農民生活，該是北邊的文學者最高尚的任務！”梁山丁，「『綠色的谷』後記」，陳隄等編，1998，《梁山丁研究資料》，瀋陽：遼寧人民出版社，196쪽.

34 아리시마 다케오(1878-1923)는 어렸을 때부터 서양식 교육을 받고 자랐던 인물로, 1903년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당시 휘트먼과 입생의 사회주의 문학 사상에 큰 감명을 받는다. 1906년 귀국한 아리시마 다케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회개조사상 연구에 몰두하였고, 1922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는 선언을 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을 개방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그러나 그는 계급적 차별로 인한 사회 불평등과 부르주아 계급에 위치한 자신의 위치, 양심적 가책 등으로 계속해서 고민하다 결국 허무주의적 경향에 심취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23년 6월 9일 애인이자 유부녀였던 하타노 아키코(波多野秋子)와 함께 동반 자살함으로써 스스로 생을

있다. 량산당은 당시 평톈(奉天, 지금의 선양(瀋陽))에서 발행되었던 잡지 『빙화(氷花)』를 통해 처음으로 아리시마 다케오의 문학을 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량산당은 “우연히 백화파(白樺派, 시라카바하)³⁵의 작가인 아리시마 다케오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당시 나는 상당한 감동과 깊은 인상을 받았다”³⁶고 회고한다. 량산당은 아리시마 다케오의 문학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문학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의 대표작인 『녹색의 골짜기』에 등장하는 지주와 소작농들의 계급적 대비 구도를 비롯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눠주는 모습은 아리시마 다케오의 실제적 삶의 행보와도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리시마 다케오가 보여준 이러한 선택은 상당히 파격적이면서도 용기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당시 좌익문학 사상에 심취해 있던 청년 작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건은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었고, 이는 이후 량산당의 작품 창작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1934년 샤오쥘, 샤오홍 등 대다수 작가들이 관내로 이주한 이후에도 량산당은 여전히 만주국에 남아 문학 창작 활동을 지속한다. 이 시기 량산당은 우잉(吳瑛), 메이낭(梅娘), 진인(金因) 등과 함께 문학 단체인 ‘문총파’를 조직하고 왕쥬잉을 중심으로 평톈에서 활동하던 ‘문선파’와 『문예총간(文藝叢刊)』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교류한다. 이후 1937년, 량산당은 『명명』에 「향토문예와 『산정화』(鄉土文藝與『山丁花』)」를 발표하였고, 이는 량산당과 구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향토문학 논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서 량산당은 이츠의 소설 『산정화(山丁花)』³⁷에 대해 매우 긍

마감한다.

35 1910년대 일본에서 문예잡지 『백화(白樺)』를 중심으로 활동한 인도주의적 작가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36 劉立善, 「有島武郎與梁山丁」, 陳隄 等編, 1998, 『梁山丁研究資料』,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445쪽에서 재인용.

37 같은 마을에 사는 장더루(張德綠)와 자오용순(趙永順)은 생계를 위해 가족들을 남겨둔 채

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만주문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이 바로 '만주국의 현실을 폭로하는 향토문학'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다.³⁸ 량산당은 『산정화』가 대다수 민중의 실제적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과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들이 “밝은 곳을 향해 성큼 걸어나가는”³⁹마지막 모습에서 작가가 보여주는 진취적 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향토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겼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량산당은 ‘향토’ 개념에 있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향토문학을 만주문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의 핵심 내용이자 방향으로 설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량산당은 ‘향토’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어에서 ‘향토’와 ‘조국’은 하나의 단어이다. 우리의 향토문학 역시 애국주의 문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⁴⁰

위의 사실에 근거한다면 량산당이 주장한 향토문학은 기존 연구에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애국주의적, 항일적 문학임이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글은 1991년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량산당이 자신의 문학 생애 전반을 회고하는 자전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당시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량산당은 1957년에

별목꾼 일을 자처하며 동산리(東山裏)로 향한다. 이들은 근 반년 동안 산에서 생활하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혹독한 추위와 고된 노동을 견딘다. 그러나 결국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대에 못 미치는 적은 품삯과 또 다시 반복되는 생계에 대한 걱정일 뿐이다.

38 “滿洲需要的是鄉土文藝，鄉土文藝是現實的。”梁山丁，「鄉土文藝與『山丁花』」，張毓茂 主編，1996，《東北現代文學大系1919-1949·第一卷·評論卷》，瀋陽：瀋陽出版社，202쪽.

39 “都大步地走向了前頭亮堂的地方。”疑遲，「山丁花」，蕭軍 等著，梁山丁 編，1989，《燭心集》，瀋陽：春風文藝出版社，252쪽.

40 “在俄文裏，‘鄉土’與‘祖國’是一個詞，我們鄉土文學，也可以說是自國主義文學。”梁山丁，「我與東北的鄉土文學」，陳隄 等編，1998，《梁山丁研究資料》，瀋陽：遼寧人民出版社，234쪽.

“일본인의 눈에 들었던(賞識)”⁴¹ 친일작가, 반동분자, 우파로 몰리며 사상 개조의 명목 하에 22년 동안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비록 1980년대 정권의 변화로 인해 다시 복권하며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 동안의 경험은 량산딩으로 하여금 정치적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한 자기검열을 진행하도록 만들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⁴²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위의 글에서 언급했던 ‘향토’와 ‘조국’을 동일시하며 향토문학, 나아가 자신의 문학을 곧 애국주의 문학으로 이해하는 작가의 인식은 일정 부분 외부적 요인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작가의 인식과 해석이 반드시 정치적 환경의 영향만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사회에서의 ‘향토’ 개념과 인식의 변화 과정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래 근대중국에서 ‘향토’의 개념은 정체성의 근원으로 작동하였으며 이는 각각의 사회 환경과 맞물려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향토는 ‘고향과 타향’, ‘증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과 같이 이원대립적인 향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근대 이후에는 점점 집단적, 사회적 의미가 부과되며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향토는 중국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기반으로 여겨졌으며 고향과 관련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엮어 묶어낸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한다. 비록 향토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

41 “受到日本人的賞識。”梁山丁, 「萬年松上葉又青——『綠色的谷』瑣記」, 1987, 『綠色的谷』,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230쪽.

42 리송루이(李松睿)는 자신의 저서에서 량산딩의 『녹색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당 작품의 출판 과정과 창작물에 대한 작가의 수정 방식 및 내용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1980년대 이후 발표된 량산딩의 글에서 1950-1970년대 시기 당대문학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으며, 1940년대 출판되었던 자신의 작품을 신시기(개혁개방이후)에 이르러 혁명역사 제재 소설의 범주 안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발견하였다. 이는 곧 중국 문학사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李松睿 著, 『寫鄉“我鄉我土”: 地方性與20世紀40年代中國小說』,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6, 241-245쪽 참고). 두아라 역시 량산딩이 1987년 썼던 『녹색의 골짜기』 후기(後記)에서 그가 “부재하는 내셔널리즘과 계급의식의 알리바이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프래신깃트 두아라(Prasenjit Duara) 저,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404쪽)

지방주의를 조성하는 폐단을 낳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유대 관계의 형성은 근대적 국가 형성에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즉, 근대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향토에 대한 애착이 곧 애국주의로까지 연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애향-애국’의 개념이 파생되기에 이른다.⁴³ 특히 식민지 시기의 ‘향토’ 개념은 동일한 공간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공동체 형성을 촉구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고유성’, ‘잃어버린 토지·고향·조국’, ‘주체성의 회복’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표상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향토’를 ‘조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했던 량산당의 서술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⁴⁴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량산당이 주장하는 향토문학은 첫째, ‘애향’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둘째, 농촌의 붕괴와 급속한 산업화, 계급적 차별 등 만주국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주의적 문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향토문학은 단순히 그 지역의 향토 풍경에 대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특색과 함께 민중의 현실적 삶이 반영된 완전한 “토산품(土產品)”⁴⁵과 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량산당은 향토문학 창작에 있어 “무릇 지방 색채가 농후한 것을 묘사하는 작품, 동북 인민의 생활을 묘사하는 작품이 모두 향

43 한지은, 2010, 「근대 중국에서 ‘郷土’ 개념의 전개」, 『문화역사지리』(22, 1), 102-105쪽 참고.

44 다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국가’, ‘조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작가가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또 다른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동북작가들의 ‘국가’ 개념과 인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당시 관내 지역까지 포괄하는 중국 전체를 자신들의 국가로 여기며 확고한 ‘국가의식’을 형성, 확립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 만주국 작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조국’의 개념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국가’ 개념과는 조금 다른, 만주국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 혹은 민족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45 “後來我編的文藝叢刊，是面向大眾的，由私人資本家開辦的益智書店編印出版的『兩極』(吳瑛著)，『山風』(山丁著)，『第二代』(梅娘著)，『去故集』(王秋螢著)，都是描寫東北現實生活的土產品。”梁山丁，「我與東北的鄉土文學」，陳隴等編，1998，『梁山丁研究資料』，瀋陽：遼寧人民出版社，234쪽.

토문학에 속한다”⁴⁶고 주장하였다. 즉, 이 시기 향토문학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체성과 지역적 특색을 확립, 보존하는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민족 해방에 대한 염원, 제국주의 침략자에 대한 저항 등 보다 넓은 사회적 함의를 내포하고 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세기 초 일본에서의 ‘향토’ 개념 성립과 향토문학 전개 과정에 대한 변화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일본은 1930년대 만주국 향토문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지만 1940년대 들어서며 그 태도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는 ‘향토문학’ 개념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인식과도 연결된다.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근대적인 향토 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킨 주요 인물로는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를 들 수 있다. 니토베 이나조는 독일 유학을 경험했던 인물로 ‘지방학(地方學)’과 ‘향토예술(Heimatkunst)’⁴⁷이라는 개념에 큰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 1907년부터 ‘향토연구회’를 조직, 1913년에 잡지 『향토연구(郷土研究)』를 창간하였다. 특히 야나기타 구니오는 니토베 이나조의 사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1910년대부터 향토를 학문적 대상으로 여기는 방법을 제시하며 ‘향토지’ 제작, ‘향토교육’ 등을 제창하며 그 개념과 방법을 더욱 확장, 발전시키는데 앞장선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본은 근대 국가형성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촌락 재건 등을 위해 국민들의 단합과 강력한 국가의식의 함양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에서 향토 개념은 점차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촌락에 대한 자각과 애정으로 발전했고, 이러한 애향심은 다시 애국심으로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향토를 국가주의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일어났고 향토의 가치는 곧 일본 정신의 함양으로까지 연결되었다.⁴⁸

46 “凡是描寫地方色彩濃郁的作品，凡是描寫東北人民生活的作品，都屬於鄉土文學。”梁山丁，「我與東北的鄉土文學」，陳隴等編，1998，《梁山丁研究資料》，瀋陽：遼寧人民出版社，233쪽.

47 독일어 ‘하이마트쿠스트’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일어난 향토예술 운동을 일컫는다.

48 한지은, 2010, 「근대 중국에서 ‘郷土’ 개념의 전개」, 『문화역사지리』(1), 101-102쪽; 이운희, 2014, 「20세기 초 동아시아 ‘향토’ 개념과 중국작가의 ‘향토’ 의식」, 『東亞文化』(52),

이처럼 ‘애향’-‘애국’을 연결 짓는 일본의 향토 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통치에 있어서도 적용되었다. 이 당시 일본은 조선인이 주장하는 ‘향토’가 잃어버린 조국과 고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러한 사상이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까지 확장될 것을 상당히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지속적으로 조선을 일본의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하는 ‘향토’ 개념을 주장하기에 이른다.⁴⁹ 이에 대한 실례로, 1942년 발표된 량산당의 『녹색의 골짜기』는 비록 만주국의 향토 현실을 그려낸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었지만 이는 당시 일본 홍보처에 의해 ‘내용에 문제가 있는’ 작품으로 판단되었고 원본 내용에 대한 대량의 삭제가 진행되었다.⁵⁰

그러나 1943년에 이르러 향토문학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한다. 1943년 전후로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리며 ‘총동원’, ‘대동아 결전기’ 등의 구호를 내세웠고, 식민지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단결’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만주국의 ‘독자성’을 더욱 강조하였고, 이러한 의식의 함양을 위해 ‘만주의 자연과 전통, 아름다움’ 등을 문학 속에 옮겨올 것을 요구했다.⁵¹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146-148쪽 참고.

49 이운희, 2014, 「20세기 초 동아시아 ‘향토’ 개념과 중국작가의 ‘향토’ 의식, 『東亞文化』(52), 148-152쪽 참고.

50 훗날 량산당은 당시의 검열로 인해 『녹색의 골짜기』가 자신의 본래 창작 의도에서 크게 벗어난 작품으로 변형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인 작가 오우치 다카오(大內隆雄)가 자신의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출판한 일로 인해 해방 이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원래 나는 농민무장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내 작품이 일본어로 번역된 후 이는 나의 창작 의도에 영향을 끼쳤다. 이 장편 소설은 문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이었는데 위만주국 홍보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 책의 발행을 금지시켰고, 페이지가 삭제되는 처우를 당했다(我原是想描寫農民武裝的, 日譯之後, 影響了我的創作企圖. 這部長篇小說, 由文化社出版單行本時, 偽滿弘報處認為內容有問題, 不許書籍出版, 遭到址頁處理).”梁山丁, 「我與東北的鄉土文學」, 陳隄 等編, 1998, 『梁山丁研究資料』,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236쪽.

51 “만주국에서는 1944년 ‘만주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의 향토문학 세미나를 포함, 끊임없이 여러 전국적 학회들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향토문학에서 독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장려한 ‘피와 흙의 정신’을 찬양했다.” 프래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 2008, 『주권과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401쪽.

로 일본은 이후 만주국에서 향토문학 창작을 장려하였고, 본래 향토문학 창작에 반대하던 작가들 역시 그 태도를 바꿔 이와 같은 정책에 동조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⁵² 물론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식민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식민통치 강화를 위한 목적성이 상당히 짙었다.

이렇듯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일본문학에서 주장하는 '향토' 개념에 내재한 '애향', '애국'과 같은 인식은 량산당이 주장하는 향토문학의 개념과도 일정한 접점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이 시기 량산당을 비롯한 만주국 작가들이 뚜렷한 국가관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겠지만 만주국의 향토문학이 지니는 '애향-애민' 의식은 러시아나 일본의 향토문학 개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추구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동체 의식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량산당은 만주국의 향토문학이 단순히 애국적 혹은 항일적인 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만주국의 현실을 인식하고 만주국의 향토 현실을 반영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그리하여 만주국의 향토문학은 향토의 현실과 풍토에 대한 이해와 묘사를 주안점으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다면 만주국의 향토문학이 기존의 관내 향토문학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략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만주국의 향토문학은 시종일관 그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두고 형성, 발전하였다. 다시 말하면, 향토문학을 제창했던 량산당과 같은 만주국의 작가들은 루쉰, 선충원 등과 같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외부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고향을 바라보며 이를 그려냈던 것이 아니라, 줄곧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며

52 “1937년까지 산평과 벌인 논쟁에서 오타니 다케오[大谷健夫]와 꾸딩[古丁] 등 잘 알려진 친 만주국 작가들은 향토문학을 단순하고 제한적인 수준이라 조롱했으나, 1943년에 이르러면 체제는 만주국의 향토문학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그것을 신문에 공표하며, 학교 교과서들에 ‘독립국’ 만주의 자연적 전통, 질박, 원기, 자연적 아름다움을 집어넣었다.” 프래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 2008, 『주권과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400-401쪽에서 재인용.

‘내부인’의 시각에서 만주국의 향토를 그려냈다.⁵³ 루쉰은 향토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췌셴아이, 페이윈중(裴文中) 등을 거론하며 베이징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들은 ‘교민(僑寓)문학의 작가’⁵⁴로 여겨질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1920-30년대 관내의 향토문학은 타지에서 생활하는 작가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봉건적 사회의 답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비판의 시각이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주국 작가들은 이들과 달리 만주국 내부에서 생활하며 그 사회의 변화와 비극적 현실을 직접 체험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외지에서 자신의 고향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나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상상’하는 고향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적(現在的) 삶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이 경험하고 목도(目睹)한 민중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둘째, 만주국의 향토문학은 새롭고 다채로운 풍경의 발견을 통해 강렬한 지방 색채를 표현했다. 만주국 작가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경과 인물들은 만주국 대다수 민중의 실제적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들인 동시에 지방 고유의 특색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원시림, 광야, 초원, 흑토지⁵⁵와 같은 이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를 비롯해 토비, 광

53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황잉화(黃萬華)의 「鄉土文學和現代意識」(『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1988, 153-154쪽))와 광정위(逢增玉)의 「東北淪陷時期鄉土文學與中國現代文學史上鄉土文學之比較」(馮爲群·王建中·李春燕·李樹權 編, 『東北淪陷時期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에 수록(1992, 66-67쪽))를 참고할 수 있다.

54 “僑寓文學의 작가” 원문에서는 ‘僑寓’를 사용하였고 이는 ‘타향에 거주하다’는 의미로 ‘僑居’와 같은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타향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미로 이를 ‘교민(僑民)’으로 해석하였다. 루쉰, 『『小說二集』導論』, 劉運峰 編, 2009, 『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86쪽; 브란데스가 언급한 ‘교민문학’은 그의 걸작인 『19세기 문학의 주조』 1권에 실렸던 ‘이민·망명 문학(Emigrant Literature)’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브란데스는 당시 프랑스 폭정에 대하여 외국으로 이주했던 작가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망명문학의 범주로 귀속시켰다. 브란데스는 ‘이민·망명 문학’, 즉 ‘교민문학’을 18세기 유럽의 무미건조한 이성주의에 대항하는 문학으로 인식했다. 李丹夢, 2010, 『僑民文學』與『異域情調』——關於魯迅的鄉土文論與鄉土小說, 『南方文壇』(5), 44쪽 참고.

55 주로 중국 동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흑색에 가까운 토지질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도 우

부, 마부, 유목민, 나아가 몽고족, 만주족과 같은 소수민족에서부터 백러시아인, 일본인, 조선인에 이르는 외국인들의 모습까지 이들의 작품은 기존의 향토문학에서 그려졌던 농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다. 비록 이들이 묘사하는 만주국의 모습이 완전한 '이방(異邦)'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폐쇄적인 사회 구조 하에 지역 문화를 보존해왔던 만주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민중들의 삶의 방식은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국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졌을 터이다.

이렇듯 1940년대 만주국의 향토문학과 향토에 대한 개념은 대체적으로 '농후한 지역적 색채'의 표현과 이를 통한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논의한 '향토' 개념의 유연성과 그 확장에 있어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주국 향토문학의 개념과 이에 대한 인식이 환경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만주국 향토문학이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대변하고 있다.

IV. '향토' 서사와 『녹색의 골짜기』 다시 읽기

향토문학은 1940년대 중국 내 피점령 지역이었던 동북과 화북(華北) 지역 문단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학형식 중 하나였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출생, 성장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현실 폭로'와 '지역 색채의 강조'를 주요 기조로 형성된 만주국의 향토문학은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 이전까지 다수의 창작물을 발표하며 만주국 문학의 양적, 질적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

크라이나 대평원, 미국 미시시피 하류지역, 아르헨티나에서 우루과이를 잇는 팜파 대초원, 그리고 중국 동북 지역 이렇게 4곳만이 이와 같은 토지질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흑토지는 많은 양분을 가지고 있는 비옥한 토지로 농작물 성장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흑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중국 문학에서 이처럼 독특한 풍경을 이루는 흑토지에 대한 묘사는 주로 동북출신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단무홍량의 『커얼진치 초원(科爾沁旗草原)』 등을 들 수 있다.

중에서도 만주국 문단에서 향토문학의 주장과 실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작가는 바로 량산당이었다.

해방 이후 중국에서 만주국 문학은 그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친일 문학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특히 지역학 연구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며 식민지 시기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연구 시각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만주국 문학에 대한 재평가에 있어 대다수 연구자들이 주목했던 부분은 문학 속 애국주의적, 항일적 서사에 대한 논의였다. 이러한 시각은 이들의 작품에 대한 문학사적 위치를 전도시키고 작가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바로 만주국 문학이 친일 혹은 항일로 구분 되는 이분법적 잣대에 의해서만 평가, 해석되었고 이러한 연구 프레임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만주국 문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만주국 작가들의 작품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 민족정신의 고취와 같은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획일적 연구 시각은 해당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⁵⁶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만주국 향토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량산당의 『녹색의 골짜기』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다. 여기에서는 작품 속 인물의 심리와 공간의 대칭적 구조가 만주국의 향토현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만주국의 다양한 사회상(像)의 발견과 낭만주의적 향토의 재현이라는 서사적 특징에 주목하며 해당 작품에 대한 새로운 독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녹색의 골짜기』는 랑거우(狼溝)를 배경으로 린(林)씨 가문의 후계자이자

56 두아라는 『녹색의 골짜기』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출판 순간부터 그 소설에 대한 대부분의 독법은 소설의 궁극적 중요성을 향토 밖에서 찾았다.” 프래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397쪽.

지식인 청년인 린샤오바오(林小彪)의 성장과 가문의 몰락, 위(於)씨 집안의 비극 등 랑거우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린샤오바오는 어린 시절 재가(再嫁)한 어머니를 따라 랑거우를 떠났고, 남만(南滿)역 도시에서 생활하며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지식인 청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도시 생활에 회의를 느낀 린샤오바오가 고향인 랑거우로 돌아오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랑거우에 돌아온 린샤오바오의 시각을 통해 작가는 랑거우 대다수 농민들의 순수한 모습을 그려내는 동시에 봉건적인 지주-농노 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비판의 시각을 동시에 그려내고 있다. 이는 린샤오바오가 계속해서 자신의 미래와 출로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과도 연결되는데 그는 한편으로는 농민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지만 결국에는 이와 같은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고자 한다. 동시에 랑거우의 땅을 매수해 철도 건설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린샤오바오의 양아버지의 첸루룽(錢如龍), 린씨 집안의 재산을 탐내고 결국에는 고모 린수전(林淑貞)을 살해하는 삼촌 린궈룽(林國榮) 등이 등장하며 랑거우의 긴장은 더해져 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린샤오바오는 랑거우를 습격한 토비 집단의 우두머리인 샤오바이룽(小白龍)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본래 토비 무리의 일원이었던 마충장(大熊掌)의 도움으로 극적인 탈출을 하게 된다. 이후 랑거우에 돌아온 린샤오바오는 자신의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고향을 떠나며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이처럼 『녹색의 골짜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등장과 함께 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 랑거우의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린샤오바오가 이러한 사건들을 몸소 체험하며 이로 인한 성격의 변화를 동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녹색의 골짜기』에서 첸루룽과 같은 매판자본의 등장과 이에 대한 린샤오바오의 혐오, 랑거우 주민들의 저항 등을 중심으로 작품 속에 내재한 민족주의적 색채와 항일 의식의 표출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제로 『녹색의 골짜기』에서는 이러한 주제 의식 이외에도 지주의 신분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리고 당시 근대 문물의 상징이었던

남만역 도시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성장한 신지식인인 린샤오바오가 작품 말미에 가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결말과 그가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방황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녹색의 골짜기』는 린샤오바오라는 인물이 식민지 만주국, 나아가 존망의 위기에 놓인 고향 랑겨우에서 다양한 사건을 겪으며 이를 통해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리는 성장소설로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랑산딩은 린샤오바오라는 인물을 구상하며 그를 완벽하게 이상적인 인물이 아닌 오히려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고 방황하는 나약한 청년의 모습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세심하게 그려내고 있다. 예를 들어, 린샤오바오는 아랫골에 사는 위샤오롄(於小蓮)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도시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 요시코(美子)에도 매력을 느낀다. 애정문제에 있어서 린샤오바오는 줄곧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는데 어릴 적부터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위샤오롄이지만 지주와 소작농의 신분, 성장 환경의 차이, 집안의 반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섣뚱 그녀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저한다. 동시에 요시코에 대해서는 그녀의 활발한 성격과 자신감 있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설명하기 힘든 ‘질투’와 ‘경계심’을 느끼며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낸다.⁵⁷ 이렇듯 린샤오바오는 두 여성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조차 확신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린샤오바오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대칭적인 구조를 드러내며 그 속에서 일종의 장력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랑겨우 내부 공간은 윗골과 아랫골로 구분되며 지주인 린씨 집안과 소작농 위씨 집안 및 대다수 농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철저하게 분리되고 있다. 또한, 린샤오바오를 중심

57 “그는 비록 이 이국의 소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적개심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어쩌면 그녀의 활발함과 조용하지만 장엄한 성격을 질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他的血液裏仍然還在流著遲滯的倔強的原素, 他雖愛慕著這個異國的少女, 而卻對於這個少女尚有著過分的敵愾心).” 梁山丁 著, 1987, 『綠色的谷』,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120쪽.

으로 그의 고향인 랑저우와 그가 근대교육을 받고 현대 문명과 조우하는 공간인 남만역이 등장한다. 이러한 공간의 구분과 단절은 린샤오바오의 심리 상태와도 연결되며 특히 린샤오바오는 이와 같은 공간의 중간적 지점에 위치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린샤오바오는 도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랑저우의 자연과 농민들의 순수함, 그리고 랑저우에서 뿔어져 나오는 생명력, 역동성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남만역이라는 도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지주의 신분이지만 소작농들의 비참한 삶을 동정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만 실제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으며 그들의 삶에 대한 탄식과 함께 그저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고 랑저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기도 한다.

량산당은 랑저우가 지니는 생명력, 순수함의 상징으로 위샤오옌과 같은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인물의 역할에 대해 작가는 작품의 “우울하고 답답한 분위기를 조절”⁵⁸하고자 했다고도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위샤오옌은 랑저우의 자연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녀가 보여주는 활발한 성격과 생기 넘침, 순수함 등은 린샤오바오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을 통해 랑저우가 지니는 긍정적 이미지와 원시적 생명력 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위샤오옌의 가족이 겪는 비극적 상황들과 그녀 자신의 암울한 인생은 결국 랑저우가 처한 위기를 드러내는 동시에 당시 만주국 대다수 농촌 및 농민이 겪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장치로도 작용한다.

이처럼 『녹색의 골짜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성격 특징과 모순적 심리는 만주국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암울한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봉건적 사상에 사로잡힌 여성과 사회 하층민들의 비극적 인생, 민족적-계급적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립펜과 같이 사회를 개혁할 힘도 의지도 없는 나약한 지식인, 도시 자본이 지니는 폭력성

58 “企圖用她調節一下低悶的氣氛。”梁山丁, 『『綠色的谷』後記』, 陳隄等編, 1998, 『梁山丁研究資料』,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7쪽.

과 농촌 사회의 붕괴 등은 당시 만주국 사회가 직면한 실제적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만주국의 향토문학이 만주국 사회의 현실을 폭로하고 만주국의 향토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량산당의 문학 주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량산당의 『녹색의 골짜기』는 만주국 향토 사회의 독특한 풍경들의 발견과 이에 대한 묘사를 통해 농후한 향토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녹색의 골짜기』는 랑거우라는 공간을 비롯해 당시 만주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상(像)에 대한 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량산당은 『녹색의 골짜기』 서두에서 랑거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가을의 랑거우는 골짜기마다 성숙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거친 껍질의 청록색 배는 8월에 태양에 반쯤 붉게 그을린 것이 마치 값싼 연지를 바른 소녀와 같이 부끄러운 듯 잎사귀 사이로 모습을 감추고 있다. 건조한 공기 사이로 개암의 껍질이 갈라지는 맑은 소리가 들려오고, 누런 개암은 풀숲에 떨어져 마른 나뭇잎 더미 속에 묻혀버린다. 실한 머루가 골짜기 깊은 곳에 가득 달려 있는데, 검붉은 자색의 껍질은 검은 빛에 감싸여 있다. 밤사이 커우강(寇江)으로부터 불어 온 서풍은 사나운 기세로 류타오(柳條)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간다. 맹렬한 기세로 랑거우의 산과 들을 흔드는 바람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산사(山楂)와 산리홍(山裏紅)을 잔인하게 떨어뜨린다. 떨어진 열매들은 산과 들 곳곳에 흩어져 때로는 허공을 날아다니곤 한다.”⁵⁹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는 단순한 배경적 설명을 넘어 만주국의 향토

59 “秋天的狼溝，滿山谷泛濫著一種成熟的喜悅。青綠色的粗皮酸梨，被八月的太陽曬紅了半面，仿佛擦抹下等胭脂的少女，害羞地藏躲在葉網裏。榛子殼剝裂著，在乾燥的空氣中發著輕脆的響聲，澄黃的榛子有的便落在草叢中，甚至被埋在枯葉堆裏。肥大的山葡萄成群地擁掛在山谷的深處，黑紫的表皮罩上一層烏光。夜裏，西風從寇河上狂吼著經過柳條邊，向北刮過來，猛烈地搖撼著狼溝的山野，樹上結著的累累的山楂，山裏紅，便被殘酷地打下來，散落在山野的各處，有時飛揚著漫在半空。”梁山丁著，1987，《綠色的谷》，瀋陽：春風文藝出版社，1頁。

사회, 즉 농촌 사회의 공간적, 환경적 특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개암'과 '산자' 열매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⁶⁰을 가진 만주국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조건과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골짜기', '산풍'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가는 만주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소개와 함께 독특한 공간적 분위기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녹색의 골짜기』를 비롯해 량산당의 기타 작품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산풍'은 때로는 매섭고 잔인한 모습으로, 때로는 부드럽고 따듯한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이처럼 변화무쌍한 산풍의 성격은 작품 속 배경 및 사건들의 속성과도 연결되며 일종의 암시적 장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랑거우(狼溝)라는 이름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이리떼가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 량산당은 작품 속에서 일정한 편쪽을 할애하여 이리떼의 출현과 린씨 집안 사람들과의 대결을 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이리떼를 랑거우를 위협하는 매판자본 및 제국주의 침략자의 상징적 표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 역시 가능하겠지만 깊은 산골짜기에서 무리 지어 생활하는 이리떼의 모습과 이들의 마을 습격과 같은 장면들은 만주국 지역의 척박한 환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이 지역 향토 사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풍경으로 다가온다.

이 외에도 남만역이라는 도시 공간에서도 당시 만주국의 특수한 상황과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취인소(取引所)'⁶¹를 들 수 있는데, 비록 작품 속에서 이와 관련한 직접

60 개암은 숲이나 산등성이에서 자라는데 저온에 강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 산사는 한국, 중국, 시베리아 등지에서 자라며 이 역시 추운 환경에 강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동북 지방에서 겨울철 즐겨먹는 간식인 탕후루(糖葫蘆)는 본래 산사열매를 설탕조림에 묻혀 굳힌 것이다.

61 일본인이 식민지에 설립했던 매매 교역소로 주로 곡물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 대외적인 설립 목적은 곡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매매상을 연결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투기적 성격이 강했고 일본 및 자본가들의 농민에 대한 수탈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린샤오바오의 삼촌 린귀룡이 취인소 교역 사업에서 투기로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⁶² 이는 당시 취인소라는 특수한 식민지 기관과 제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처럼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투기와 수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주국 도시의 기형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반영한다.⁶³ 더불어 이러한 도시의 풍경은 만주국 농촌 사회와의 대비 속에서 그 상이한 성격과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형성하고 있다.

상술한 인물의 모순적 심리와 서로 다른 공간이 드러내는 복합적 성격 외에도 『녹색의 골짜기』에서는 작가의 낭만주의적 향토 서사의 특징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량산당은 일찍이 『녹색의 골짜기』의 창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왜 제목을 『녹색의 골짜기』로 지었는가? 이에 대해 나는 일본어 번역본의 『서(序)』에서 허울 좋게 말하기를: ‘녹색은 청춘, 건강함, 활기를 상징하고, 성숙한 희열을 추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설의 주제이다.’ 사실 나는 녹림호한(綠林好漢)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소설의 첫머리에서 휘펑(霍鳳)이 따슴장(大熊掌)을 배웅하고 그가 토비 무리에 참가하는 데에서 나는 따슴장

62 “린귀룡은 남만역에서 투기 매매로 기차 50량에 달하는 콩을 배상해야했고, 3만냥이 넘는 돈을 빚져 ‘취인소’의 독촉을 받았다. 린귀웨이(역주: 린샤오바오의 부친)는 이에 분노하여 신문에 공개적으로 핏줄의 연을 끊겠다는 신기까지 했다. 또한 백마지기가 넘는 류타오(柳條) 지역의 비옥한 토지를 팔아 대신 그 빚을 갚아주었다(林國榮在南滿站倒把賠了五十火車黃豆, 虧三萬多塊老頭票, 被‘取引所’代理店逼上了, 林國威氣憤之余, 在報紙上登了一段與族兄弟斷絕關係的啓事, 同時賣了柳條邊外差不多一百天肥地, 替他還債.)” 梁山丁 著, 1987, 『綠色的谷』,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13쪽.

63 량산당의 또 다른 작품인 『산풍(山風)』(1938)은 양잔(糧棧: 실제적으로는 농민을 착취했던 제도로 토착자본과 결탁하고 있던 농산물 유통 기구를 의미한다. 양잔은 일본이 농촌 지배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존재였다. (오카다 히데키(岡田英樹) 저, 최정옥 역, 2008,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서울: 역락, 114쪽(각주 10번) 참고))을 거점으로 농민에 대한 수탈과 외국자본에 의한 농촌 경제의 파탄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소설은 각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그 장면들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는데 철저하게 구분된 계급 구조, 사회 경제 구조 하에 고통 받는 농민과 소상공업자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다.

이라는 농민에 대한 숭배와 존경을 드러내고자 했다. 소설 말미에 파승장이 랑거우로 돌아와 마을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장면에서 나는 이 독립호한이 인민들의 추대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⁶⁴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량산딩은 독립호한과 같은 영웅적 인물의 묘사와 이에 대한 숭배와 존경 등을 소설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량산딩은 '토비'라는 독특한 형상을 선택하였는데 토비가 보여주는 거칠고 자유분방한 성격은 향촌 사회가 지니는 원시적 성격과 어우러지며 더욱 신비한 역량을 뽐어낸다. 더군다나 량산딩은 '파승장'이라는 인물을 통해 농민과 토비의 신분을 겸비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다. 비록 작품 창작 과정에 있어 파승장이라는 인물은 량산딩의 초기 구상과 같이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못하였지만, 파승장이 기존의 토비 형상과는 달리 향촌의 대다수 농민들과 같이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모습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형제들(토비무리)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린샤오바오를 탈출시키는 모습 등은 이 인물의 비범함과 정의로운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토비에 대한 영웅적 서사 및 긍정적인 인식의 표현은 1930-40년대 만주국과 관내로 이주한 동북 출신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는 독특한 현상 중 하나이다. 이 시기 만주국에서 토비는 농민을 착취하는 지주 계급이나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에 대응할 수 있는 동력을 지닌 인물(집단)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시 문학 작품 속에서 토비의 형상은 이전의 마을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탈하던 악인의 모습이 아닌 정의로운 의적(義賊)의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토비의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의 변화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웅적 인물의 도래를 통한 현실의 변화와

64 “爲什麼題名『綠色的谷』呢? 在日譯本的『序』上, 我冠冕堂皇地說: ‘綠色象征青春, 健壯, 活潑, 並含有追求成熟的喜悅, 這就是小說的主題.’ 其實, 我本意是要寫綠林好漢的, 小說開頭寫霍鳳送走大熊掌進山, 去參加綰子, 點出我對大熊掌這個農民的崇敬; 小說結尾寫大熊掌回狼溝, 受到鄉親們的款待, 點出大熊掌這個綠林好漢是受到人民愛戴的。” 梁山丁, 1987, 「萬年松上葉又青——『綠色的谷』瑣記」, 『綠色的谷』,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226쪽.

심리적 위안을 얻고자 했던 만주국 작가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⁶⁵ 나아가 당시 만주국 사회에 존재했던 토비와 이들이 형성한 집단 문화는 만주국의 독특한 풍경이자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녹색의 골짜기』에서 작품의 낭만적 성격을 극대화 시키는 또 하나의 장치는 바로 소설의 결말에서 린샤오바오가 자신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부분이다. 상술하였듯이 이러한 결말에서는 아리시마 다케오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지주의 신분으로 죄책감을 느끼던 그가 결국 자신의 농지를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사건은 량산딩에게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린샤오바오와 아리시마 다케오가 보여준 이러한 행위는 상당히 이상적인 동시에 그 정도의 지나침으로 인해 오히려 허구적인 느낌을 유발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결말과 독특한 서사적 구조 속에서 량산딩은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러나 그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 『녹색의 골짜기』가 지니는 긍정적인 상징들과 일종의 ‘희열’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듯 『녹색의 골짜기』의 향토서사는 만주국의 새로운 풍경과 이에 대한 발견, 인물 및 사건들이 보여주는 복합적 성격의 묘사를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량산딩의 향토문학이 주장한 ‘향토 색채’와 ‘향토 현실’의 반영을 토대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향토서사에 대한 이해는 『녹색의 골짜기』에 대한 새로운 독법의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즉, 그동안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녹색의 골짜기』를 해석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서사적 특징에 대한 주목은 오히려 작품 본연에 대한 심도 있는 독해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곧 만주국 향토문학의 특징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65 1930년대 토비 형성의 문학적 변형과 관련해서는 줄고 「'비인(非人)'에서 '의인(義人)'으로-1930년대 동북작가 작품 속 토비(土匪) 형상의 문학적 변형」(『중국현대문학』, 86)을 참고할 수 있다.

V. 나오며

20세기 이후 중국문학에서 '향토'는 줄곧 중요한 서사 대상으로 자리 잡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근·현대 문학사에서 '향토문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반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향토문학은 중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농촌) 사회와 그 안에 사는 대다수 민중(농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20세기 중국의 역사와 거대한 사회 변혁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성장하였다. 이렇듯 향토문학이 지니는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고는 1930년대부터 1945년 해방 이전 시기까지 만주국 내부에서 형성, 발전한 향토문학 주장과 창작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삼았다.

만주국의 향토문학은 5.4이후 전개된 중국 신문학과 좌익문학의 영향과 함께 러시아, 일본 등 외래문학의 요소와 융합하며 그 개념을 확립하였고, 만주국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1920년대 중국에서 향토문학은 고향을 떠난 작가들이 타지에서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모습을 회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향토문학을 통한 사회비판적 의식과 농촌의 계몽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루쉰과 선충원은 1930년대 중국 향토문학 개념의 성립과 창작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작가들로 꼽을 수 있다.

만주국의 향토문학은 일정부분 관내 지역 향토문학의 개념과 내용을 반영하였지만, 동시에 주변국이었던 러시아 문학과 식민지배자로 만주국을 세운 일본의 문학 등 다양한 외부 요소를 흡수하며 '향토'와 '애향' 의식을 연결 짓는 독특한 향토문학을 구축한다. 특히 이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줄곧 생활하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만주국의 현실과 민중의 삶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기에 더욱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향토문학을 구축한다. 또한, 이들이 작품 속에 묘사한 만주국의 자연 환경, 풍속, 다양한 인물상(像) 등은 만주국 향토의 독특한 풍경을 발견하고 지역적 색채를 표현

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만주국의 대표적인 작가 량산당의 향토문학 주장과 그의 작품 『녹색의 골짜기』를 중심으로 만주국 향토문학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량산당은 만주국 향토문학 주장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만주국 시기 활동으로 인해 친일작가, 반동파의 오명을 쓰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문화대혁명 종료 후 1980년대에 이르러 만주국 문학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되며 그동안의 편견과 오해를 벗어나는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문학 속 항일정신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만주국 향토문학이 지니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만주국 향토문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향토’ 및 ‘향토문학’ 개념에 대한 시기별, 국가별 인식의 차이와 그 함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바이다. 그리하여 20세기 초 중국 및 주변국 향토문학의 형성과 전개 과정 속에서 발견한 ‘향토’ 개념의 유동적 성격과 그에 대한 중층적 이해는 궁극적으로 만주국 향토문학이 지니는 복합적 성격의 탐색을 가능케 한다. 나아가 만주국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만주국 향토문학의 서사적 특징과 문학적 함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만주국 문학 연구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梁山丁 著, 1987, 『綠色的谷』,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 梁山丁 著, 牛耕耘 編, 2017, 『山丁作品集』(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作品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 魯迅 著, 2005, 『魯迅全集·第六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魯迅 著, 2005, 『魯迅全集·第七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茅盾 著, 1991, 『茅盾全集·二十一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蕭軍 著, 1981, 『魯迅給蕭軍蕭紅信簡註釋錄』,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蕭軍 等著, 梁山丁 編, 1989, 『燭心集』,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 劉運峰 編, 2009, 『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張菊香 編, 2009, 『周作人散文選集』,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 張均 編, 1938, 『周作人代表作選』, 上海: 全球書店
- 張直心 著, 2016, 『鐘晚集』,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鐘叔河 編, 1995, 『周作人文選·卷一』, 廣州: 廣州出版社
- 陳繼會 等著, 1999, 『中國鄉土文學史』,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 陳隄 等編, 1998, 『梁山丁研究資料』,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 丁帆 等著, 2007, 『中國鄉土小說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馮爲群·王建中·李春燕·李樹權 編, 1992, 『東北淪陷時期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瀋陽: 瀋陽出版社
- 哈爾濱市地方誌編纂委員會 編, 1994, 『哈爾濱市誌·報業廣播電視』,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李松睿 著, 2016, 『寫鄉“我鄉我土”: 地方性與20世紀40年代中國小說』,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劉洪濤·楊瑞仁 編, 2006, 『沈從文研究資料·上』,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劉曉麗·(日)大久保名男 編著, 2017, 『偽滿洲國的文學雜誌』(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史料卷), 哈爾濱: 北方文藝出版社
- 逢增玉 著, 1997, 『黑土地文化與東北作家群』, 長沙: 湖南教育出版社
- 王科·徐塞·張英偉 著, 2008, 『蕭軍評傳』,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 張毓茂 主編, 1996, 『東北現代文學史論』, 瀋陽: 瀋陽出版社
- 張毓茂 主編, 1996, 『東北現代文學大系1919-1949·第一卷·評論卷』, 瀋陽: 瀋陽出版社
-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卷編纂編委會 編, 1996,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오카다 히데키(岡田英樹) 저, 최정옥 역, 2008,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서울: 역락
- 프래신짓트 두아라(Prasenjit Duara) 저,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2. 학술논문

- 黃萬華, 1988, 「鄉土文學和現代意識」,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
- 李丹夢, 2010, 「“僑民文學”與“異域情調”——關於魯迅的鄉土文論與鄉土小說」, 『南方文壇』(5)
- 李樹權, 1992, 「論山丁的小說創作」, 『社會科學輯刊』(2)
- 呂欽文, 1989, 「東北淪陷時期的鄉土文學」, 『社會科學戰線』(3)
- 逢增玉, 1984, 「東北作家群創作的鄉土色彩」, 『湖南師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5)
- 吳亞丹, 2015, 「鄉土·正義·人性——讀梁山丁『綠色的谷』」, 『名作欣賞』(24)
- 余榮虎, 2008, 「早期鄉土文學與域外文學理論, 思潮之關係」,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5)
- 嶽玉傑, 1993, 「試論梁山丁的鄉土小說」,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
- 張毓茂, 1988, 「評梁山丁的『綠色的谷』」, 『遼寧大學學報』(91)
- 趙園, 1982, 「來自大野的雄風——端木蕻良小說讀後」, 『十月』(5)
- 이윤희, 2014, 「20세기 초 동아시아 '향토' 개념과 중국작가의 '향토' 의식」, 『東亞文化』(52)
- 정겨울, 2019, 「滿洲文學의 형성과 '滿洲想像': '文叢派'와 '藝文志派'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89)
- 한지은, 2010, 「근대 중국에서 '鄉土' 개념의 전개」, 『문화역사지리』(1)

투고일: 2020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9일

■ Abstract ■

A Pastoral Re-reading of Manchurian Literature
: An Analysis of Liang-Shanding's Literary Propositions and Works

Jung, Keoyul (Dongguk University)

Although research on Manchurian literature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China recently, under political influence since the 1980's it has generally been conducted from the polarised anti-Japanese or pro-Japanese perspective, without detailed analysis of the text in local context.

With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of Manchurian local literature, and based on this, attempts to reinterpret Liang Shanding's novel *The Valley of Green*, setting emphasis on how the author reproduces Manchurian local colours, a consideration of people and reflections of contemporary Manchurian society. For this, it firstly looks back on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Chinese local literature, analyses what connection this forms with contemporary literature in Russia and Japan, then discover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of Manchurian local literature. Finally,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various research methods to the study of literature in Manchukuo, which could lead to the discovery of new dimensions of the Manchurian local literature.

Keywords: Local Literature, Native Place, Manchukuo Literature, Liang Shanding, *The Valley of Green*